

# 미군정기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과 메이데이 시위 학생참여 사건

김동선(서울역사편찬원)

1. 서론
2. 서울시 학무국의 성격과 활동
3. 서울시내 학생들의 메이데이 시위 참여와 서울시 학무국의 반응
4. 문교부와의 갈등과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 교체
5. 결론

## 1. 서론

해방 이후 조선에는 미군정이 들어섰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용한 친미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립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해방이전 京城이라고 불리던 서울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제의 식민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의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변화 대상 중 하나였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서울시헌장, 같은 해 9월 군정법령 제106호를 공포하였다. 이 조치로 한성, 경성이라고 불리던 서울은 서울특별시로 명명되고, 경기도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지금에 이르렀다.<sup>1)</sup> 미군정은 서울시헌장을 발표하고, 서울시를 특별자유시(municipal corporation)라고 규정하였다. 서울시 헌장은 당시 서울시는 물론 조선의 어떤 도시에서도 약속받지 못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시장, 참사(오늘날의 시의원), 법무관, 재정관, 회계검사관 등을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sup>2)</sup> 이와 더불어 서울시 조직을 7부 6국 1처 4회로 구성하도록 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서울시 조직은 工營部(소속국: 上下水道及其他附屬工事, 軌道, 營線保管局, 不動產局), 경찰부(검시국), 소방부(防火局), 학무부(도서국), 공익사업부, 보건위생부, 후생부, 상공부<sup>4)</sup>로 구성되었다. 이외 教育會, 許可訴訟會와 공원위원회, 예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처 등이 있다.<sup>5)</sup>

이 같은 서울시의 조직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부서가 바로 학무국이다. 미군정은 조선에 선거를 통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에서 친미세력을 키울 도구가 필요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교과교육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sup>6)</sup> 당시 조선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군정은 조선인들에게 민주주의와 문자를 가르쳐야만 했다.

---

1) 강석정,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의 구조와 긴장-」, 『법사학연구』 58권, 2018, 150쪽.  
2) 「서울시 憲章」, 군정청, 1946년 8월 10일 참조.  
3) 「建築許可都市廳서 七部六局으로一大改編」, 『동아일보』, 1946년 11월 22일.  
4) 「서울시 憲章」, 군정청, 1946년 8월 10일, 46쪽.  
5) 「서울시 憲章」, 군정청, 1946년 8월 10일, 12~18쪽.  
6) 김동선, 「교수요목기 중등학교 공민교과 교수요목의 내용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9, 228쪽.

서울시의 상황도 이와 같았다. 미군정은 서울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면서 시장 및 그 직원을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7)</sup> 서울은 조선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서울주민들을 민주주의 사회에 알맞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학무국이 중요시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은 미군정의 목적과 큰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특별시인 서울의 특성상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독립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내 조선인 관료와 교육자들의 입장도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시내에 학교들에 사실상 미군정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인 관료나 교육자의 입장과 태도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과 성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서울시 학무국의 내부 상황과 미군정기 서울시의 교육관 및 자치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것이 당시 서울시 교육에 미친 영향도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시 학무국의 변화과정을 통해 미군정과의 관계, 정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학무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미군정기 서울시 시정전반에 대한 연구조차 미진한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군정기 서울시의 교육행정 운영과정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일제하 군국주의 체제하에 있던 서울 주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오늘날 ‘서울시민’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밝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서울시 학무국의 성격과 활동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다. 이후 생겨난 미군정에서 서울시를 통제하는 문제는 첫 번째 군정부대가 도착했을 때, 부대 배치전환을 요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원래 제3팀은 상륙이 늦어진 제1팀을 대신해 서울시에 배정되었다. 서울은 의회, 경기도청, 시청 소재지였다. 정치 활동, 경제적 문제, 전재민,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서울에서 유래했다. 미군정은 서울시가 가는 대로 한국의 나머지 부분이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8)</sup> 따라서 서울시의 성격은 이후 조선에 들어설 새 정권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학무부는 1946년 8월 공포된 서울시헌장에 의해 역할과 조직이 규정되었다.<sup>9)</sup> 그런데 학무부는 서울시의 다른 부서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었다. 다른 부서의 경우 대부분 부장이 관리하고 부장은 시장이 임의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 파면도 임의로 가능하였다. 그런데 학무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과 사범대학 외 시내공립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일은 시교육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였다. 시교육회는 시장이 지명하여 참사회의 결의를 받아 승인된 7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률과 교육회 결정에 의해 학교를 설립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때에 따라 학교를 변경 개선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었다. 서울시 내 학교운영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셈이었다. 시교육회원의 휴직과 파면 역시 시장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헌장에 따르면 선거역원, 인사처직원, 공익사업위원 또는 교육회 중 공무상 비행이 있을 때 시장은 휴직을 명하며, 참사회는 파면을 한다고 하였다. 시교

7) 「市政事務의簡素化 市長은市民이選出한다」, 『동아일보』, 1946년 10월 17일.

8) 「재3장 도(道)및 지방 정부(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경기도(Kyonggi-Do)」, 『주한미군사』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憲章發効못하는 矛盾된 [서울市(市)]」, 『동아일보』, 1947년 12월 21일.

육위원회의 휴직을 명할 때 시장은 휴직사유를 서면으로 참사회에 통지해야했다. 그 후 제1차 정례회의 전 또는 그 회의에서 해당 휴직직원에 관한 비행내용을 서면으로 참사회에 제출하고, 즉시 해당 역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해야했다. 해당역원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참사회에 출두할 권리가 있었다. 참사회는 서류를 접수 후 5일 이후에 심사를 시작하고, 그 비행이 전 참사회원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역원을 파면하도록 하였다.<sup>10)</sup> 즉, 교육회는 인사 상 비행이 있다고 참사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교육회는 학교관리관을 집행직원으로 임의로 고용하여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헌장에서는 서울시 학무부의 업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학무부가 선정한 시교육회의 업무와 권한,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학무부에서 시교육회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교육회원은 시장과 참사회원이 함께 동의하여 임명되는 직위였다. 이것으로 시교육회가 서울시와 조선인 참사회원들의 타협에 의해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으로 구성된 시교육위원회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당시 학교 운영에 미군정이 관여하는 바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1945년 서울시를 맡은 40군정중대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시 학무과는 교사들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sup>11)</sup>

1946년 초부터 미군정은 미국이 직접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그만두고 책임을 넘겨받은 조선인들의 고문 역할을 하거나, 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이나 혹은 남조선과도정부(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가 성립하게 되면 사령관의 최고통치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군정을 변형하거나 조선인화 방침 아래서 군정장관을 위임하려는 조선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sup>12)</sup> 이 정책의 일환으로 1946년 8월 24일 미군정은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도입법의원 의 정원은 90명으로 그 중 45명은 선거로 선출되었다.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각도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외 각도와 서울특별시는 전체적 代議士 각 1명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지적생활의 주요한 민주적 요소를 공평정대하게 대표하도록 선정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38도선이남 조선각도와 서울특별시의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이 선거하며, 과도입법의원 창설하고 군정장관이 재가한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규정에 따라 남녀의 구별없이 보통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미군정이 정한 과정에 따라 선거를 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서는 각 里, 町은 대표2명씩을 선거하고 리, 정 대표들은 각 소속 面, 畝 또는 區대표 2인씩을 선거하며, 그 면, 리, 구 대표들은 각 소속 道 인구 할당에 의하여 의원 도 대표들을 선거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비밀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하였다.<sup>13)</sup> 과도입법의원 창립법령은 이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났고, 좌우합작과정에서 좌익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비판받는 면이 있다.<sup>14)</sup>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교육과 문해 교육이 실시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미군정은 서울시가 가는 대로 한국의 나머지 부분이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초대 서울시장이었던 김형민의 회고록에서도 확인된다. 김형민은 1946년 1월 러치(Archer L.

10) 「서울시 憲章」, 군정청, 1946년 8월 10일, 3~4쪽, 14쪽.

11) 『국역 서울지역 관할 미군정문서』, 서울역사편찬원, 2017, 213쪽.

12) 「5절 미군정 하에서의 법적 효력」, 『주한미군사』 3(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 부서의 직능이양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하라, 「러취」 장관 談」, 『동아일보』, 1946년 9월 13일.

13) 「제118호 조선과도 입법의원 창설」, 『미군정관보』, 1946년 8월 24일.

14) 김영미,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266~268쪽.

Lerch)를 만나 경성부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러치는 이 자리에서 “서울은 이 나라의 수도이며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 행정이 성공하면 남한의 80퍼센트 이상이 성공한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하였다.<sup>15)</sup> 따라서 미군정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먼저 교육해야 할 대상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었다. 또한 미군정 기간 동안 서울시의 각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다양한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곳이 학무부이기도 하다.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자본주의에 편입시켜 미국의 상품시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up>16)</sup> 이러한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남한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여야만 했다. 미군정은 조선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선거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미군정은 선거에 앞서 조선인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미군정 학무당국은 “민주국가의 공민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sup>17)</sup>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회교육과’를 도입하고,<sup>18)</sup> 민주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 ‘사회교육과’에 속해있던 ‘공민’교과서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양항목이 생겨나고,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조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울러 “개인이 공동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개인은 尊法奉公을 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었다. 개인이라는 용어자체도 사용되지 않았다. ‘私’의 존재와 권리가 미미한 상황에서 휴양도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군정기의 교수요목에는 개인을 공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었지만,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민주정치와 선거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등공민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원리와 역할, 삼권분립, 국민의 역할 및 민주주의 정치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식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미국의 취지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셋째, 비판적 정신과 과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출판과 보도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비판정신과 언론에 대해 다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생과 사회라는 항목을 두어 인간의 도덕과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수신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공민을 길러내고자 한 것이다.<sup>19)</sup>

이와 함께 문해교육도 실시되었다. 1944년 일제의 조사에 따르면, 남한 인구 1천 7백만 가운데 7백 7십 3만 3천명이 비문해자였다. 이 중 4백만명이 국가경제 및 정치활동의 주역인 18~45세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sup>20)</sup>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명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고, 해방직후부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sup>21)</sup> 1947년 서울시 학무국은 입학학령 초과 아동 및 기타문맹자를 수용

15) 김형민, 『김형민회고록』, 범우사, 1987, 223쪽.

16) 「南朝鮮教育改革이必要 언더우드 博士力說」, 동아일보, 1947년 10월 1일자; 「러취(Archer L. Lerch) 소장파 피텐거(A. C Pittenger) 중령에게」, (1947. 1. 27), 정태수, 『Higher Education in Korea』,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 上, 홍지원, 1992, 657쪽. 김동선, 「교수요목기 중등학교 공민교과 교수요목의 내용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

17) 「사설 新教育의 理念」, 동아일보, 1945년 12월 15일자.

18) 정태수, 『Summation No.12(1946.9)』,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상, 홍지원, 1992, 97쪽.

19) 이에 대해서는 김동선, 앞의 논문, 252~254쪽 참조.

20)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se in Korea』, Vol, No 2, No 5-12, p.32.

하고 교육하는데 주력하였다.<sup>22)</sup> 서울시 미국인 시장이었던 윌슨(James E. Wilson)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서울시내 빈곤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희사하기도 하였다.<sup>23)</sup>

서울시의 학무부의 예산은 1947년도에는 4억7천만원이었으며, 이듬해 1948년에는 7억원에 달하였다. 학무부의 교육비 예산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 예산은 1947년 9억7천9백52만9천40원이었고, 1948년에는 14억1천1백86만8천4백90원이었다.<sup>24)</sup> 이처럼 학무부의 예산은 학무부 예산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학무국은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신문기사를 통해 서울시 학무부(혹은 학무국으로 나타남)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	신문명	제목	비고
1945.12.11	민중일보	市内各學校生徒, 交通安全運動開始	
1945.12.13	중앙신문	깨끗해질 서울시, 小學校兒童을 動員清掃作業	
1945.12.26	민중일보	小學校教員冬期講習	
1945.12.28	중앙신문	戰災者에 衣類配付, 서울시서 女學生動員製作	
1946.5.14	중앙신문	말더듬이無料矯正	
1946.9.24	독립신보	서울市學務課長 李德鳳氏就任	
1946.10.12	독립신문	學務課를 局으로 昇格, 서울시學務局의 機構擴充	
1946.11.26	한성일보	第一回全國國民學校送球選手權大會	대회 후원
1946.12.4	경향신문	運輸部에七個條項要求	영등포 철도 사고 유족 위령제 주관
1946.12.11	공업신문	斷乎한 對策講究, 實習場貸與·事實이면 處斷, 登校禁止는 考慮할 點, 서울시學務課長談	
1946.12.21	경향신문	律動과遊戲 講習會開催	
1947.1.7	경향신문	汽車通學生을爲하야 驛構內圖書館을設立	
1947.01.08	경향신문	朝鮮將來는學生의것 三千萬의期待도크다	
1947.01.28	동아일보	各產業場에公民校設置 十三歲-十六歲兒童을教育	서울시 학무국 설치
1947.02.08	경향신문	배우며要求하라	국대안 관련 중학교 맹휴에 서울시 학무국장 입장 표명
1947.02.08	어린이신문	새소식, 공장 공민학교 설치, 서울시 학무국에서 계획	
1947.02.09	현대일보	宗教類似團體 速히 登錄하라	
1947.02.13	경향신문	宗教類似團體는 急速히申告하라	
1947.02.20	현대일보	教員採用 候補者銓衡	
1947.04.11	동아일보	新規事業은保留 保健·民生問題에置重 今年度市豫算七億二千萬圓	

21) 「학령 학동 2부 취학케」, 『자유신문』, 1945년 11월 7일.

22) 「新規事業은保留 保健·民生問題에置重 今年度市豫算七億二千萬圓」, 『동아일보』, 1947년 4월 11일.

23) 「서울市教育獎學會組織 美人喜捨의三百萬圓을基礎 苦學生은 기뻐하라」, 『경향신문』, 1948년 12월 3일.

24) 「今年度서울市豫算 教育費는除外하고」, 『동아일보』, 1948년 3월 27일.

1947.5.17	독립신보	京城農業서 또 盟休, 校職員과 退學生復校要求코	
1947.05.21	중앙신문	入學難 依然 未免, 서울市內 中等校 收容力 不足	
1947.05.09	경향신문	培花女中校處事等과 關係各當局者의意見	
1947.05.10	부녀일보	서울市학務局 美人顧問言明, 文教當局諒解없이 警察의  학생干涉은 不當	
1947.05.11	경향신문	退學當한培花女中生 復校토록指示하겠다	
1947.05.11	수산경제신문	日帝殘滓校長退陣하라, 서울市學務局마美人顧問談	
1947.05.11	자유신문	서울시 학무국에서 민주교육방침을 시달, 마틴고문 획기적 성명	
1947.05.14	경향신문	退學生들의復校를指示	
1947.05.24	동아일보	暗誦式廢止코 智能試驗實施 調査書를試驗成績半으로	
1947.5.27	중앙신문	教育界에 큰 示唆? 마-틴顧問處事に 聲援이 多大	
1947.05.30	동아일보	서울시에 教育委員會	
1947.06.07	어린이신문	새소식, 입학 시험에 실시될 지능 고사란 이런것, 서울시 학무국 발표	
1947.06.01	중앙신문	成人教育強調週間	
1947.06.15	가정신문	學齡兒登錄하시요:서울市學務局서 注意喚起	
1947.07.01	독립신보	마틴氏의 視務停止處分, 市當局的 虛偽進言에 依한것.	
1947.07.03	한성일보	市學務局顧問스미스氏就任	
1947.07.27	현대일보	倭政때에 使用하던 타이프라이터-○ 우리나라말로 完成 希望者에 斡旋한다	서울시 학무국 주관
1947.08.09	漢城日報	苦學生脫線行狀 市當局서 學校監視指示	
1947.08.14	경향신문	京畿道國民校에 空册五萬卷配給	
1947.08.29	경향신문	新入學童의 教育法講座	
1947.09.07	漢城日報	市內國民學校敎員百餘配置	
1947.09.07	독립신보	中等教育에 朗報! 九月부터 夜間中學에 新設 : 中等교육에  낭보! 9월부터 야간중학에 신설	
1947.09.10	현대일보	國民校敎員採用試驗實施	
1947.09.11	현대일보	市內公私立初中等學校長會議를 開催	서울시 학무국 주관
1947.09.14	조선중앙일보	中初等學校, 授業料引上	
1947.10.14	현대일보	國民校敎員 合格者實地試驗	
1947.10.23	현대일보	冬服配給한다 中等校生에게	서울시 학무국 주관
1947.11.06	현대일보	國民校燃料優先配給 敎員質的向上에 努力	
1947.11.06	제일신문	後援會費全廢는 不能, 教育問題, 李서울市學務局長의 辯	
1947.11.23	동아일보	故俞億兼氏의 育英事業費募集에 一般의非難藉々	
1947.12.31	獨立新報	中等校長會議開催	

1948.1.11	중앙신문	學生도 動員	
1948.03.17	경향신문	新生活運動作品 市에서懸賞募集	
1948.04.03	경향신문	選舉指導者 講習會開催	
1948.04.09	경향신문	父兄母姉啓蒙에 兒童綜合學藝會	
1948.05.25	동아일보	今年度中等校 入學選拔細則	
1948.07.02	동아일보	洋裁作品展	
1948.07.06	동아일보	洋裝學院 衣裁展	
1948.07.07	동아일보	六臣墓保存會 市에서組織計劃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시 학무국은 학교의 신설 및 관리, 학생 선발 및 관리, 직업교육, 아동교육, 민주교육 시행 및 종교단체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학무국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학교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생활과 민주주의 교육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시기 학무국장과 교육회 명단도 비교적 상세히 남아 있다.

1945년 미국 진주 직후 서울시 학무과장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이계익이다. 그러나 학무과 감독관 브라운(Lieut Brown) 중위는 경기도 군정의 스나이더(Snyder) 중위와 더불어 서울시 학무과장을 교체하자는 제안을 논의하였다.<sup>25)</sup> 경성부 학무과장은 이후 張勃<sup>26)</sup>로 교체되었다. 미군정기의 각 도 학무국 구성원으로 표에서 그가 경성부 학무과장이었음이 확인된다.<sup>27)</sup> 그가 언제 취임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의 활동은 1946년 4월 국민학교 취학을 권장하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sup>28)</sup> 그는 1946년 8월 26일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부장 취임으로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하였다.<sup>29)</sup> 1946년 9월 24일 서울시 학무국장으로 李德鳳<sup>30)</sup>이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특별시가 되어, 경성부 학무과장 대신 서울시 학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25) 『국역 서울지역 관할 미군정문서』, 서울역사편찬원, 2017년 153쪽, 191.

26) 1901년 인천 출생했다. 호는 雨石, 세례명은 루드비코(Louis)였다. 휘문고보를 졸업 후 1920년 동경 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이듬해인 1921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국립디자인학교(New York National Academy of Design)에서 1년간 수학하고 1923~1925년까지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사범대학의 실용미술학부에서 미술실기와 이론과목들을 수강하였다. 귀국 후 가톨릭 성화제작에 주력하면서 휘문고보와 경신고보, 동성상업학교 교사, 계성여자상업전문학교 초대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34년 具本雄, 吉鎮燮, 李馬銅, 金容俊 등과 牧日會를 조직하고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 후 경성부 학무과장으로 임명되었고, 1946~195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부 교수와 미술부장을 역임했다. 1950년에는 가톨릭미술가협회를 창설하고, 전쟁 중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네소타대학의 교환교수로 초빙되어 2년간 미국에 머물렀다. 귀국 후 195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어 1961년까지 역임하였다. 1964년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여 세인트빈센트 대학(Saint Vincent College)에서 미술사강의를 하였고, 추상작업과 다수의 가톨릭 성화를 제작하였다. 2001년 4월 8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사망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데이터베이스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장발&ridx=0&tot=10>)

27) 이 내용의 출처는 대한교원공제회, 『해방교육 40년』, 『교원복지신보』, 1985~1989(24~51호)이다. 그러나 이 조사표 속의 미국인 군정관 또는 자문관의 성명이 미군 측 기록과 상위한 곳이 많이 발견된다. 이는 근무 시기 관계로 불일치한 것을 보인다.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한국교육 정책자료1』, 국사편찬위원회, 358쪽, 재인용).

28) 「國民校入學의絶好의機會 노치지말라!願書接受는오날뿐」, 『동아일보』, 1946년 4월 25일.

29) 「서울市廳에辭表沙汰」, 『동아일보』, 1946년 8월 29일.

30) 1898년 해주출생이다. 水原農林學校를 졸업하고, 황해도 松禾郡의 技手가 되었다. 1920년 4월 동아일보 해주지국을 경영하며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培花女高의 교사로 해방까지 재직하였다. 해방 이후 경기도 장학관과 서울시 초대 학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한국대학(국제대학 전신) 창립하였고, 서울대 사범대와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6.25 때 서울 수복이후로 고려대학교로 옮겨 생물학과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종교은 기독교(장로교)이며, 신앙이 깊었다. (『薰育五十年 植物界의 꽃 李德鳳教授』, 『동아일보』, 1961년 10월 6일). 1963년도부터는 중앙대 교수로 활동하였고, 1972년 동백장을 받았다. (「제27회 光復節 시민會館서紀念式,有功者등 표창도」, 『동아일보』, 1972년 8월 15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가 확장되었다. 이전에는 시내 각 국민학교만을 통괄·관리하였지만, 이후에는 서울시내 남녀중등학교(고급중학교도 포함)까지 지휘·감독하게 되었다.<sup>31)</sup> 1947년 7월 10일 이덕봉이 사임하고, 미군정기 마지막 서울시 학무국장으로 문교부 행정관이었던 李承宰가 취임하였다.<sup>32)</sup> 이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장발은 장면의 동생으로 한민당의 발기인이었다.<sup>33)</sup> 이덕봉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해주지국을 경영하였고, 6.25 이후에는 고려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승재는 해방 직후 조선교육심의회 의 위원으로 참여<sup>34)</sup>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는 미군정기 ‘교육주도세력’이라고 불리웠다. 천연동 모임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는데, 주요 인물은 金活蘭, 金性洙, 俞億兼, 白樂濬, 吳天錫 등이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유학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나 자산가 계층에 속하여 해방 이후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sup>35)</sup> 이렇게 미군정기 경성부 학무과장 및 서울시 학무국장은 동아일보 및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 조선교육심의회와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우익성향이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성격도 학무국장과 그 성향이 비슷하다. 1947년 5월 28일 서울시 교육위원이 결정되었다. 이때 선정된 교육위원은 白樂濬, 金活蘭, 李軒求, 趙容郁, 徐榮鎬, 金容完, 朴述音이다.<sup>36)</sup>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개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 대표자로 설립되었다.<sup>37)</sup> 이들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이름	경력
백낙준	1896년 3월 9일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 1910년 9월 평안남도 선천 신성학교 입학. 1913년 중국 텐진 영국인 교회학교 신학서원에서 3년간 수학. 1916년 9월 도미. 미주리주 파크대학(Park University)에서 서양사 전공. 1922년 6월 파크대학을 졸업 후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 입학, 1925년 9월 졸업. 예일대학(Yale University) 대학원 입학. 종교사학 전공. 1927년 예일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 받음. 졸업 후 귀국, 1927년 9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 1940년 1월 일본기원 2600년 봉축신도대회에 참석 「총후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1940년 이후 경성노회 소속 목사로 연희전문학교에서 시무. 1941년 8월 20일 조선예수교 장로교도 비행기부회 부회장으로 임명.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교육위원에 선임. 10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부장에 임명·법문학부 서양사교수 겸임. 11월 조선교육심의회 교육이념위원. 1946년 연희전문학교 교장 취임. 8월 연희대학교로 변경되면서 초대총장. 1948년 대한민국 교육법 기초위원. 10월 대한소년단 총재. 1950년 문교부장관·연희대학교 이사장. 1953년 연희대학교 총장, 대한 YMCA 연맹위원장. 1954년 10월 세브란스 의대 이사장. 1955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1957년 1월 연세대학교 초대총장 취임. 1960년 정년퇴임. 1960년 참의원·초대 참의원 의장.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미국 북장로교회 교육처 고문으로 초빙되어 도미하여 남미, 인도

31) 「서울市學務課長 李德鳳氏就任」, 『獨立新報』, 1946년 9월 24일.  
 32) 「市 학무국장 사임」, 『자유신문』, 1947년 7월 12일. 이승재는 京城法學專門學校를 卒業했다. 서울 출생이며, 解放後 中央廳文教部에서 勤務하고, 서울市 學務局長이 되었다. 府屬, 道屬, 文教部初等教育課長 등을 거쳐 서울市 教育局長에 就任했다. (『대한민국인사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im\\_108\\_03124](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im_108_03124))  
 33) 「大韓臨時政府支持의 韓國民主黨을 結成」, 『매일신보』 1949년 9월 9일.  
 34) 「신교육의 근본 방침 구체적 심의를 개시」, 『자유신문』, 1945년 11월 15일.  
 35)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2006년, 566~573쪽.  
 36) 「서울市教育委員決定」, 『경향신문』, 1947년 5월 29일.  
 37) 서울지역관할 미군정문서, 서울역사편찬원, 2017, 235쪽.



	등지의 기독교 교육기관을 감사하다가 1963년 귀국. 1961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세대학교 명예총장. 1962년 뉴욕대학교메달 수상.
김활란	1899년 인천 출생. 1907년 인천 永化學堂 입학. 1908년 梨花學堂 초등·중등·고등과 졸업. 1918년 3월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이화학당 고등보통과 교사. 1922년 미국 오하이오주 웨슬리언대학교에 편입. 1924년 6월 졸업. 10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입학. 1925년 7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겸 학감, 1930년 6월까지 재직. 1927년 2월 개최된 신간회 창립대회에 여성대표 간사로 참석. 5월 근우회 회장으로 선출. 같은 해 7월에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2차 태평양문제연구회 俞億兼 등과 함께 조선 대표로 참석. 1930년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철학연구과에 입학, 1931년 철학박사 학위취득. 1932년 9월부터 1939년 8월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 학감 및 부교장.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에서 주최한 사회교화진흥간담회 참석. 1937년 1월 방송교화선전협의회 부인강좌반 강사로 참여. 1937년 愛國金鉉會의 발기인 및 간사. 1938년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 학생 400여 명을 동원, 이화애국자녀단 결성.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및 이사. 1939년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의 교장 취임. 같은 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 및 參事.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훈련부 참사.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의 발기인으로 참여, 10월 결성 때 평의원. 1945년 조선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 이화여자전문학교 총장. 11월 조선교육심의회 교육이념위원. 12월 독립촉성중앙부인회를 조직. YWCA 재단이사장. 1946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1950년 8월 공보처장. 1952년~ 1954년 『The Korea Times』 발행, 사장 역임. 1955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韓美財團 이사장. 1963년 8월 대한민국장 수상.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미국 감리교회 다락방상 수상. 대한민국일등수교훈장.
이헌구	함북 명천 출생. 1916년 廣進普通學校 졸업, 1920년 中東學校 중등과, 普成高等普通學校 편입·1925년 졸업. 1925년 早稻田大學 제1고등학원 문과 입학, 1931년 문학부 불문학과 졸업. 대학 재학시절인 1926년에 해외문학연구회 조직. 1931년 劇藝術研究會 창립동인. 1936년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 광복 후 中央文化協會·全朝鮮文筆家協會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주의 문학노선에 입각하여 좌익계의 프로문학 타파를 위한 反共自由文化를 강력히 제창. 그 뒤 민주일보 편집국장, 민중일보 사장, 공보처 차장,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대표, 예술원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장 등을 역임. 1973년 예술원상 수상.
조용욱	전북 익산. 1924년 중등학교 졸업, 1929년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졸업. 그 해 중등학교 교사,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를 겸임. 1935년 송도중학교 교사. 1940년 금천중학교 교사·부교장. 1943년 동덕여자중학교 교사·부교장. 1950년 동덕여자대학 교수·부학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대우)를 겸임, 당시 문교부 대학교수자격심사위원을 역임.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동덕여자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법인 동덕여학단 이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를 겸임. 문교부 한자약자제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사립단과대학장회 회장. 1980년 동덕여자대학의 명예학장, 한국민족연맹 총재와 학술원상 심사위원 등 겸임.
서영호	1895년 서울 출생. 한성외국어학교 졸업. 1912년 경기이천공립보학교 代用教員, 1914년 조선공립보통학교 부훈도, 조선공립보통교 훈도, 1927년 경기도 효창공립보통학교 훈도, 1926년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 大阜普校 교장, 정동普校 교장, 봉래 심상高等小學校 교장, 대신상업專修校 교장, 서대문국민학교 교장, 덕수국민학교 교장, 수송국민학교 교장, 대한교육연합회 이사
김용완	1904년 서울 출생. 경성방직 사장, 廣島高等師範學校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방직협회 이사장, 韓國經濟人協會 會長, 김성수의 매제.
박술음	1919년 송도고등보통학교 3·1운동에 참가, 퇴학.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졸업 후, 1924년 휘문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 1937년 일본문부성 영어과교원검정고시에 합격, 1947년 연희대학 영문과 교수. 1952년 사회부장관. 1955년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및 학장. 1970년 국

민훈장 동백장.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a href="https://encykorea.aks.ac.kr/">https://encykorea.aks.ac.kr/</a>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이들 중 백낙준과 김활란은 조선교육심의회에 속하던 인물들로 한민당과 가까웠다. 김용완은 김성수의 매제였으므로 그 역시 한민당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현구 또한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이대 교수를 지냈던 인물로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박술음은 연희전문 출신으로 송도고보를 나와 연희대학 교수를 지낸 기독교인으로 이들과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용욱과 서영호가 선정된 것은 조선교육심의회 중등교육위원으로 1946년 서울시 代議員<sup>38)</sup>을 지내고, 1947년 2월 서울시 參事로 선정된 趙東植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39)</sup> 조동식은 동덕여자대학교의 창립자로 1907년 3월 한성한어학교와 1910년 1월 사립 기호학교 사범과를 졸업했다.<sup>40)</sup> 서영호는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했고, 조용욱은 동덕여대의 학장이었기 때문에 조동식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역시 조선교육심의회에 속한 인물들과 성향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미군정기 조선인 서울시 학무국장과 교육위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교육계 종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학무국 내 미국인 고문 및 관료들과 함께 서울시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 3. 서울시내 학생들의 메이데이 시위 참여와 서울시 학무국의 반응

서울시 학무국장과 교육위원들은 조선교육심의회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에 근무하던 미국인 고문관은 이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 학무국 관련 기사 가운데 눈길을 끄는 기사는 1947년 노동절 행사에 참여한 학생 퇴학문제와 경찰개입에 대한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1947년 5월 1일 노동절에는 1,000명이 넘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남산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들 중 몇몇 학생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5월 2일, 경찰은 서울시 미국인 고문에게 일부 학생들이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체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경찰은 이들 학생들을 1주일에서 10일 정도 “유치장(교도소의 독방이 아님)에 구금하는 조치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미국인 고문은 이러한 조치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질책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은 “서울 경찰청장의 허가나 혹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지 없이 학교에 진입했으며, 교장 및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노동절 당일의 결석자 명단을 확보한 후, 다수의 학생들을 검거하고 심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이들 150여 명 중 8명은 경찰이 그들을 따로 선별하여 경찰서로 연행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요 그룹을 심문한 후, 이들 8명을 위층에 있는 다른 방으로 데려가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심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5월 3일, 이들 8명의 여학생들과 다른 몇몇 학생들은 재입학을 요청한다 해도 복교가 불허되도록 학교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학교 교장들은 제명된 학생

38) 「서울市代議員은누구?」, 『동아일보』, 1946년 10월 29일자.

39) 「서울市參事 八名을選定」, 『동아일보』, 1947년 2월 27일

4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들에게 이들의 복교가 학교 행정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장들은 제명된 학생들이 이전에도 문제였으며, 메이데이 사건은 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해주었다고 말했다.<sup>41)</sup> 이에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 마틴(Burton E. Martin)은 학원운동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一. 각학교장은 학무국 직접관하에 학교운영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것
- 二. 각학교장은 모든 문제의 불평을 문교부가 아니고 시학무국에 직접말할 것
- 三. 경찰은五월一일후에 구류된 전학생을 즉시 석방할 것
- 四. 五월一日에 학교를결석하였다는이유로만퇴학 시켜서는 아니된다
- 五. 五월一일전에 그릇된일을한 학생은 그때에 퇴학시켰어야할 것이다
- 六. 「메-데-」를계기로 하여 처음으로 죄가드러난 학생들은 엄격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내야한다
- 七. 「매-데-」참가자가 그학생의 유죄또는 무죄의 척도(尺度)가 되어서는 안된다
- 八. 어느직원 이라도 그들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경찰의힘으로 비러서는안된다<sup>42)</sup>

이 내용은 서울시내의 각 학교 교장은 시학무국과 문제를 협의하고, 경찰에 구류된 학생을 전부 석방시켜야 하며, 학교에서 퇴학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마틴은 이에 대해 “평화적인 「메-데-」기념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학무당국에서 각 학교에 지시한 것은 잘못이며, 또 직접 정치적 행동에 참가하지도 않고, 정부의 질서나 법률을 침범하지도 않은 학생에 대하여 경찰이 간섭한 것은 경찰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나 어린 여학생에게 심혹한 질문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각 교의 교장에게도 “교내 학생문제를 경찰에게 의뢰하고 경찰이 이러한 문제로 학원에 침범해 들어온 것을 묵인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의 침략 정책의 잔재 같은 중세기적 교육방침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한 정당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교를 지시하겠다고 하면서, 문교부 당국자나 서울시 학무당국자가 다 함께 자유스럽고 지적인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 방침이 완전히 서서 조선의 자주독립의 추진력이 되기를 바란다<sup>43)</sup>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 마틴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는 서울시내의 학교들은 군정청의 문교부보다 서울시 학무부의 지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교부는 이를(학생들의 남산 집회 행사 참가 불허) 우리와 논의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구하거나 혹은 우리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부서의 몇몇 멤버들에게만 - 하지만 부서의 모든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몇몇 교장들은 그들의 지위 보전을 염려했고, 실제로 문교부가 많은 교장과 교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인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교장들과 많은 교사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sup>44)</sup> 둘째, 그는 학생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게

41) 「제9장 교육(CHAPTER IX)-XI.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기타 소요들 (STUDENT STRIKES AND OTHER DISTURBANCES)」, 『주한미군사』4(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e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e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 참조.

42) 「學院運營方針等を 闡明 - 미顧問各學校長에 指示發牒」, 『경향신문』, 1947년 5월 15일.

43) 「退學當한培花女中生 復校토록指示하겠다」, 『경향신문』, 1947년 5월 11일.

44) 「제9장 교육(CHAPTER IX)-XI.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기타 소요들 (STUDENT STRIKES AND

자라나야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학생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며 이 학생의 권리는 아무에게도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45)</sup>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이 학교 내에 침입하거나 학교 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미국인 고문 마틴은 학생들이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시위에 참여하고 정부의 질서나 법률을 어지럽히지 않는 한, 노동절 행사 참여여부는 ‘시민’인 학생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마틴은 학무국과 경찰이 서울시 현장에서 규정하는 서울시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현장에서는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난 특별자유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따라 보통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서울시의 직권으로서 시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령과 규정을 통과시키고 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6)</sup> 그럼에도 문교부에서 학생의 남산집회 행사참가 불허를 서울시 학무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틴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서울시 내 학교들이 학교 내 문제를 문교부에 앞서 서울시 학무부와 먼저 상의해야한다고 보았다.

마틴은 “서울시 교장과 교사들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작성했다. 이를 검토한 러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a. 문교부가 지역 문제에 간섭했다는 혐의 b. 학교 교장들이 교육 당국의 정책을 지원하는데 실패한 이유 c.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였다. 조사는 1946년 9월 16일 발표된 미군정 일반명령 제34호에 근거해 1947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를 통해 문교부가 1947년 5월 1일 이전에 서울시 학교들에 지시를 내렸으나, 이는 단지 구두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미국인 고문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문교부 고문이 마틴 고문에게 보낸 그의 정책 표명을 질책하는 비망록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는 먼저 민정장관에게 전달된 후, 그의 관할 하에 미국인 고문에게 전달되었어야 했다. 또한 남산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 이후 경찰이 실제로 학교에 진입하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경찰서로 연행해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 미국인 고문은 경찰이 허가 없이 학교에 진입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경찰청장 및 경감이 이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고 진술했다.<sup>47)</sup>

마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고문에 임명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이나 정치관은 민주적이었다. 1947년 6월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나 사회는 인민의 것이요 학교는학생이 원하는학교라야만할것이니 몇몇권력자를위 한국가 사회나일교장선생을위한학교는생명도업고 발전성도업슬 것이다 정부에잇는사람 이 인민보다우에서잇다고함은 위험한생각이며 그들은어데까지나 인민의벗에불과하다는

OTHER DISTURBANCES)], 『주한미군사』4(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

45) 「退學當한培花女中生 復校토록指示하겠다」, 『경향신문』, 1947년 5월 11일.

46) 「서울시를特別시로」, 『동아일보』, 1946년 8월 15일.

47) 「제9장 교육(CHAPTER IX)-XI.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기타 소요들 (STUDENT STRIKES AND OTHER DISTURBANCES)], 『주한미군사』4(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

것을알아야한다전제적인사회에잇서서는 권력자는자기의상위한사상을극히무서할하며 탄압하려고한다 사회의진보성은만흔생각과사상의조흔점을어터케잘이용하느냐함에 있다 어느사상을무서워하며 탄압하려함은 권력자가벌써 그사상에대항할 도리가없다는것을자인하는 것이다 조선교육계가 전제를벗어나활발한진보를하려면 폭력으로나오지안는이상 모든이상과사상을포용함에잇고 탄압은사회의사멸이라는 것을알어야할 것이다 나의전임이라는 것은 아직소문에불과하며 확정된것이아니다 미군정최고책임자도 나의정책에 동감하고있다 조선의민주적교육계특히학생들이나를 적극 지지하여주는것을잘알고있다 몇몇조선인당국자가반대함은 유감사라아니할수업다 그러나금 에잇서서도조선교육계의민주화를위하여최선을다하고십다<sup>48)</sup>

마틴은 “정부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벗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강압을하려함은 그 권력자가 벌써 그 사상과 이론에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의 진보성은 다양한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교육계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모든 이상과 사상을 포용해야한다고 하였다.<sup>49)</sup>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의 이러한 시각은 조선인 교육자들에게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었다.<sup>50)</sup>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에 들어간 1946년 5월부터 미국은 남한에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도입을 원했고, 남한 정치의 정당화를 위해서 독일에서 한 것처럼 남한에서도 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하였다.<sup>51)</sup> 서울시 현장 명시된 지방조직을 선출하는 선거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교육이었던 것이다. 서울시 학무국 고문 마틴은 선거에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었다.

그러나 마틴의 이러한 태도는 서울시 학무국의 조선인 관료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마틴이 발표한 성명은 전체적으로 한국인 서울시 학무국 국장이던 이덕봉의 승인 없이 작성된 것이었다. 이덕봉은 그와 미국인 고문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고문이 발표한 성명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마틴은 이덕봉이 자신의 의견을 거의 구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자신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증언했다.<sup>52)</sup> 실제로 이덕봉은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2

48) 「民主教育을 爲해 努力, 마-틴氏決意를 거듭 表明」, 『중앙신문』, 1947년 6월 29일.

49) 「朝鮮學生은 나를 支持, 마-틴氏側近者에 心境吐露」, 『工業新聞社』, 1947년 6월 27일.

50) 1948년 10월 열린 교육좌담회에서 최현배는 마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국민학교나 대학교에서는 모르겠으나 중학교에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고문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위 진보적이어서 메-데-에 참석한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나 구라파에 가보니 중학교에서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요. 대학에서 공학을 한다고 해도 따로 공부를 한답니다. 또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의 유명한 평론가가 미국의 교육제도를 깎아내려 말했는데 대체로 학제가 좋지 못하다고 막 말했어요. 남녀가 한 데 모여 접촉하면 자연 문란해서 미국에서는 간통이 예외가 아니라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민족교육의 길 본사주최 교육좌담회 문화 누구나쉬배출글③』, 『서울신문』, 1948년 10월 21일.

51) 「공위 결렬 후 대한정책, 남한 단독 선거 추진 등을 둘러싼 부처간 회의 내용 -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장관의 회의 비망록」, 『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3&itemId=fru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frus\\_002r\\_0010\\_06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3&itemId=fru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frus_002r_0010_0620))

52) 「제9장 교육(CHAPTER IX)-XI.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기타 소요들 (STUDENT STRIKES AND OTHER DISTURBANCES)」, 『주한미군사』4(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월 국대안을 둘러싸고 시내 학교들의 맹휴가 이어지자, 이덕봉은 맹휴를 하며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이 문교부의 입장이며, 서울시 학무국의 입장이라고 하였다.<sup>53)</sup> 이는 그가 미군정 문교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문교부와 의 갈등과 서울시 학무국 미국인 고문 교체

이 사건으로 문교부 미국인 고문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한국명: 元漢慶)와 서울시 학무국 고문 마틴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언더우드는 마틴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미국인들은 고문관일 뿐이지 책임자가 아니며,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들은 중앙의 문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의 학무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따졌다.<sup>54)</sup> 그리고 5월 16일 서울시와 문교부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냈다.

… 政治的行事に參加하라학교는 순수한교육기관으로 정치적이용물이될수없다 그러므로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정치성을 띤 교외행사에참가하여서는안된다  
二元的命令系統없다  
이번학교처사에 대하여 명령계통이 불분명한듯한 점도있는듯하나 군정방침으로언제나 명확히되어있는바이지만은 二원적인 명령계통이있을 수 없다 學校의自律性을認定중앙 문교부에서는 대체로교육기본방침을정하고 그범위안에서 지방학무국에서 자율적으로 제 一선교육행정을수행하고 정부의 기본방침에의하여 학교장이자치적으로 실제교육운영에 당하기를 되어있으므로 이번학생처분문제의 자율성을 인정하여야할 것이다.<sup>55)</sup>

이 기사는 교육계통은 이원적일 수 없으며, 중앙 문교부의 기본방침이 서울시 학무국의 결정보다는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문교부는 대체로 학교장이 자치적으로 실제 교육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생을 제명한 학교장의 조치 역시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서울시 학무국 자체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이 결론이 내려진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문교부 고문이었던 언더우드와 마틴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마틴과는 달리 언더우드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 출신이었다. 미군정기 조선 교육부문에 참여했던 선교사나 선교사 2세들 등은 대부분 공산주의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졌던 인물들이다.<sup>56)</sup> 그는 1945년 조선교육심의회에 고문으로 활동하였다.<sup>57)</sup> 따라서 그의 교육관은 조선교육심의회 의원들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교육심의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

53) 「배우며要求하라」, 『경향신문』, 1947년 2월 8일.

54) 「제9장 교육(CHAPTER IX)-XI.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기타 소요들 (STUDENT STRIKES AND OTHER DISTURBANCES)」, 『주한미군사』4(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4&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2&levelId=husa_004r_0020_0120)).

55) 「學園은純粹한教育機關 學生은政治行事に加擔말라」, 『동아일보』, 1947년 5월 17일.

56) 김동선, 앞의 논문, 237쪽.

57) 정태수,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Topics to be discussed」, 『자료집』 상, 506~515쪽

회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다. 특히 언더우드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민주주의를 보급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조선인은 일본, 소련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을 꼽았다.<sup>58)</sup> 언더우드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동맹휴학 및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내 학생들의 투쟁위원회 활동과 단식투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하였다. 그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학생들이 재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맹휴학 지도자들은 수원의 기숙사를 점령하고,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59)</sup> 아버지와 함께 문교부 및 서울대학교에 근무했던 아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一漢)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 언더우는 1946~47년 겨울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젊은이들의 선동으로 과격한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sup>60)</sup>

둘째, 서울시 학무국 내 조선인 당국자와 학교장들의 반발이 있었다. 앞서 인용한 1947년 6월 신문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학무국내 조선인 당국자들은 마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틴은 조선인 학무국장 이덕봉이 그와 말도 하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맹휴사건 해결에 경찰을 동원한 학교장들도 불만이였다. 일제강점기 교장의 업무는 거의 일본인이 맡았기 때문에 해방 후 새로 선발된 교장들은 대체로 적절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교육 경험 혹은 기타 행정업무 경험이 부족했다. 또한 미군정은 교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들로 이루어진 후원회(Parents' Association)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61)</sup> 따라서 교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미군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마틴과는 다른 교육관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마틴과 이들의 이러한 차이는 이덕봉과 마틴의 알력으로 나타났다.<sup>62)</sup> 이들은 마틴이 학무국장 이덕봉을 무시하고, 분규에 대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이 학생을 취조한 것도 마틴이 위촉한 것이라 문교부 인사집행관에게 수차례 진언하였다.<sup>63)</sup>

한편, 조선교육 조선인 학생들은 대체로 그를 지지하였다.<sup>64)</sup> 마틴은 학생·학부형 단체, 교육관계자들로부터 수천 건에 달하는 격려문과 감사장을 받았다. 그가 받은 감사격려문은 2천여매에 달하였다.<sup>65)</sup> 1947년 5월에는 서울시청기자단이 학원민주화와 학교문제의 경찰 개입에 항의하였다.<sup>66)</sup> 1947년 6월 배화여중 측에서 메이데이에 참여한 학생 7명에 대한 퇴학처분을

58) 「教育方策改善하라, 過政언더우드博士論難」, 민중일보, 1947년 10월 1일자.

59) 정태수, 「Weekly Reports, Department of Education(Underwood, 1947. 3. 7)」, 자료집-상, 378쪽.

60) H. G. 언더우드,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년, 137쪽; 언더우드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은 김동선, 앞의 논문, 236~239쪽 참조.

61) 「IV. 초등, 중등, 사범교육의 진전 (Elementary, Secondary, and Normal School Progress)」, 『주한미군사』 4(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husa\\_004r\\_0020\\_005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hus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1&levelId=husa_004r_0020_0050)

62) 「마틴氏에게 視務停止 李學務局長과의 軋轢이 原因? ; 마틴에게 시무정지 이덕봉 학무국장과의 알력이 원인?」, 『漢城日報』, 1947년 7월 1일.

63) 「마-틴氏의 視務停止는 一部人士의 그릇된 進言에 基因」, 『여성신문』, 1947년 7월 1일; 「마틴氏의 視務停止處分, 市當局의 虛偽進言에 依한 것」, 『독립신보』, 1947년 7월 1일.

64) 「朝鮮學生은 나를 支持, 마-틴氏側近者에 心境吐露」, 『工業新聞社』, 1947년 6월 27일.

65) 「學生處分問題餘波未盡, 「마-틴」氏에는 感謝文還至」, 『民報』, 1947년 5월 27일.

선처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sup>67)</sup> 그러나 이후 배화여중 측에서는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선처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색하였다.<sup>68)</sup> 1947년 6월 19일 서울시 학무부 고문이었던 마틴은 시무정지 처분을 받았다.<sup>69)</sup> 그가 정직되자, 조선교육자협회, 文盟 등을 위시한 문화·교육단체들이 정직해소운동을 전개하였다.<sup>70)</sup> 이후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밝혔다. 서울시장은 시위참가 학생에 대한 각 학교의 처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시위에 인솔한 교사와 시위참가 학교 교장도 이에 책임에 있으므로 그들 역시 시에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였다.<sup>71)</sup> 아울러 서울시장 김형민은 메이데이 반탁시위행렬에 참여한 학생과 교원에 엄벌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sup>72)</sup> 뒤이어 7월 3일 마틴은 일본으로 건너가고, 새로운 학무부 고문 스미스가 취임하게 되었다.<sup>73)</sup> 1947년 7월 10일 한국인 학무국장이었던 이덕봉도 사직했다.<sup>74)</sup> 이덕봉이 왜 사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덕봉은 훗날 학무국장 경험을 “아예 두 손을 들고 말았다”로 표현하고 있다.<sup>75)</sup> 이 표현으로 보아 이덕봉의 사직은 이 메이데이 시위 학생참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이후 1947년 9월 즈음 서울시 내 다수의 초·중학교 ‘좌익교원’들이 검거되었다.<sup>76)</sup> 이것은 남한전체에 확산되었다. 1947년 9월 27일 현재 검거된 교원은 183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검거된 이유는 좌익성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밀령을 받아 세포조직으로 교육계를 적화시키려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동들에게 좌익사상 고취, 맹휴선동, 현 교육제도 파괴를 획책했다는 것이었다.<sup>77)</sup>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파탄으로 마무리되고, 미국이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 결론

이상으로 서울시 학무국의 성격과 활동, 메이데이 시위 참가 사건에 대한 서울시 학무국과 문교부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학무국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민주주의 보급을 위해 문해운동과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조선의 중심으로 모든 일에 우선시되었고, 서울시 당국과 미군정은 한결같이 민주주의 교육을 보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서울시 학무국과 미군정 문교부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교육, 한글교육 등을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

66) 「學園民主化의 破壞者 肅清하라!는市廳記者團의公開狀」, 『경향신문』, 1947년 5월 30일.

67) 「學校當局善處言明, 培花女中事件一段落」, 『중앙신문』, 1947년 6월 4일.

68) 「培花高女事件再燃, 校長的 背信에 學父兄弟 憤慨」, 『서울夕刊』, 1947년 6월 14일.

69) 「마-틴氏視務停止에 鮮教文聯에서 撤回을 要求」, 『중앙신문』, 1947년 6월 25일.

70) 「마틴씨를지시」, 『교육계, 문화계서 정직 해소운동』, 1947년 7월 1일.

71) 「金市長談, 反託示威한 學生處分案, 校長과 職員은 市에서 直接處分」, 『獨立新報』, 1947년 6월 26일.

72)

73) 「마-틴氏渡日後任스미스大尉 ; 서울시청 학무국 고문 마틴 도일, 후임 스미스 대위」, 『현대일보』, 1947년 7월 3일.

74) 「市 학무국장 사임」, 『자유신문』, 1947년 7월 12일. 이승재는 京城法學專門學校를 卒業했다. 서울 출생이며, 解放後 中央廳文敎部에서 勤務하고, 서울시 學務局長이 되었다. 府屬, 道屬, 文敎部初等教育課長 등을 거쳐 서울시 教育局長에 就任했다. (『대한민국인사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im\\_108\\_03124](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itemId=im&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im_108_03124))

75) 「薰育五十年 植物界의 꽃 李德鳳教授」, 『동아일보』, 1961년 10월 6일

76) 「市當局談 敎員檢舉되여도」, 『동아일보』, 1947년 9월 2일.

77) 「적색 교원 기소」, 『조선일보』, 1947년 9월 21일.



거 및 투표 과정을 대비하려고 하였다.

둘째, 서울시 학무국의 미국인 고문과 조선인 관료 및 교육위원회는 교육관과 정치관이 서로 달랐으며,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학무국의 조선인 관료와 서울시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우익성향의 인사들이었고,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미국인 고문 마틴과는 서로 생각이 달랐다. 미국인 고문 마틴은 정부는 인민의 벗이며, 권력으로 인민을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의 진보성은 다양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므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갈등관계는 학생들의 메이데이 시위참가를 둘러싼 문교부와 학무국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국인 고문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그 부서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은 각 학교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 학무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조선인 교육위원과 각 학교들의 입장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셋째, 미군정 문교부의 입장은 서울시 학무국 내 조선인 관료와 교육위원의 그것과 부합했다. 문교부 미국인 고문이었다던 언더우드도 조선교육심의회에 참여했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우익 성향의 인물이었다. 서울시 학무국장 이덕봉과 교육위원 또한 직·간접적으로 조선교육심의회와 우익계 정당이었던 한민당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관과 정치관은 상당히 유사했다. 이런 까닭으로 문교부는 결국 서울시 학무고문이었다던 마틴을 정직하고, 이들에 뜻에 따라 메이데이 시위 참여자들의 처벌을 결정했다.

미군정은 서울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일정 수준의 자치를 허용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당시 미군정의 교육 정책에 부합하여, 민주주의 교육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였다. 미국인 고문 마틴은 민주주의 교육 보급을 위해 배정된 인물이었다. 그는 애초 미군정이 발표한대로 서울시 학무국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하려 하였다. 그는 서울시내 학교들은 서울시 학무국의 지휘를 받아야하며, 인민을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메이데이 시위 학생참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군정은 서울시의 자치수준을 '문교부의 교육정책'에 따르는 한에서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서울시 학무국의 독립적인 결정을 불허한 것이다. 더불어 조선인 학무부장 이덕봉을 무시하고 메이데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학무부장을 교체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보급하려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군정은 조선에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 했지만, 그것은 이념 대결의 틀 안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완전한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다. 서울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켜 일정 수준의 자치를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그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을 때, 이념에 대한 자유와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더 이상 미군정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학무국의 활동과 문교부와의 갈등은 서울주민들을 '시민'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서울시의 문해정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은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서울의 학생과 주민들은 문교부와 서울시 학무국 내 미국인 고문과의 갈등 상황에서 학무국 미국인 고문인 마틴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마틴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하였다. 이것이 비록 그들 자신이나 혹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서울 주민들은 학원자치와 이념의 자유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서울시민의 탄생의 한 과정으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